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Ⅷ.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1. 미혹의 때

[마태복음 24:3-4]

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가복음 1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야고보서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신앙을 지키는 것은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미혹'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한다. 사람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다.

2. 뜻을 정하는 일

[다니엘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다니엘이다. 다니엘의 신앙이 마지막 미혹의 때에 더욱 조명되어야 한다.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했던 바벨론은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미혹'의 세상과 같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향한 도전과 미혹, 그리고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다. 다니엘 1:8절을 보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한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1) 거룩한 삶을 향한 '결심'

[Daniel 1:8]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NIV)

뜻을 정하는 일은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니엘의 결심은 분명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일에 대한 결심이다. 즉, 거룩한 삶에 대한 결심이다. 미혹의 때를 그냥 이길 수 없다.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향한 분명한 마음의 결심을 말한다.

결심은 추상적이지 않다. 분명한 일에 대한 마음의 다짐을 말한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다. 구체적으로 결심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향한 결심은, 나의 삶에서 구체적인 결심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다.

결심은 '우선순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실천 리스트가 있어야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신앙은 내 삶에 적용된 하나님 나라의 우선된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신앙은 내 삶을 분명하게 한다. 모든 영역에 구체적인 가치가 '우선순위'로 리스트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절대성'을 말한다. 절대적 우선순위가 구체적 리스트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마음의 결정이 결심이다.

(2) 분명한 목적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

[Daniel 1:8]

But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with the portion of the king's meat, (KJV)

뜻을 정하는 일은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목적은 중요하다. 목적은 삶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이다. 신앙은 목적지를 향한 '항해'와 같다.

[빌립보서 3:14]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처없이 흘러가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천로역정). 천로역정의 내용을 보라. 목적지를 향한 순례의 길 안에 많은 미혹들이 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바벨론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분명했다.

목적은 '데스티니'를 말한다. 마음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데스티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뜻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다. 소명이 없는 삶은 결국 흔들리게 된다. 상황의 파도에 전복된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목적없이 흘러가는 자유인의 삶을 말하는 세상 사조를 경계해야 한다. 성경 66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신앙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목적'으로 그려져 있어야 한다.

더디게 가도 된다. 분명한 방향성만 있으면 된다. 방향 없이 분주하게 하고 나를 바쁘게 하는 일로부터 나와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방향성 없는 바쁨과 분주함이야말로 나의 삶을 파괴하는 세상의 폭력이다.

예복과 노아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다. 동행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것이다.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행'이라는 한 단어에 기록된 예복과 노아의 삶은 위대하다. 다른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마음이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는 구체적인 표어가 중요하다. 목적은 마음의 정렬이다. 그래야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실재적 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는 삶을 말한다.

(3)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Daniel 1:8]

But Daniel made up his mind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with the king's choice food or with the wine which he drank;(NASB)

뜻을 정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생각의 정렬을 말한다. '사고방식'이다. 사고방식은 생각의 구성을 말한다.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 안의 정렬이 있었다. 바벨론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들었겠는가? 보고 듣는 것이 생각에 영향을 준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강해도 다니엘의 생각의 사고방식은 정렬되어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의 틀이 있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뜻을 정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분명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 분명해야 한다. 내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이 무엇이랴 말하고 있는가를 구해야 한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긴 사건을 기억하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셨다.

교회는 내 이야기, 내 생각, 나의 삶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생각안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뜻을 정하는 삶이 이 때에 필요하다. 말이 난무한 시대, 자기 생각과 이념이 홍수를 이루는 때이다. 뜻을 정하라. 진짜 승리를 맛보아라.